



평화·반핵·환경·보건·여성관련부문 지역단체와 개인들이 연합한 '반핵평화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남주, 김현)은 반전·반핵·군축을 통한 평화운동의 대중적 전개를 표방하는 단체다.

보건의료·환경·여성·문화계인사등 5백90명이 발기인으로 나선 '반핵평화운동연합'은 80년대후반 이후 부쩍 높아진 환경·핵문제에 대한 관심

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운동으로서의 생명 평화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작년6월 최열 황상의 윤정모 씨등 공해추방운동연합 반핵평화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2월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남주·시

인)를 구성하고 부문·지역단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직을 갖추되 지난 3월 13일 공식출범했다.

“최근 서구에서는 핵·군축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탈핵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핵평화운동연합의 조임숙 교육부장은 한반도의 냉전원인을 핵무기와 핵시설의 집중과 현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와 미군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대로 알리고 핵시설의 이면에 드리워진 반생명적 음모를 폭로해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킬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핵평화운동연합’은 지난 달 22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1천인 선언대회를 가진것을 시작해 ▲평화걷기대회 ▲일본 원자수소폭탄금지대회참가 ▲핵발전소지역 조사활동 ▲지역내 반핵평화운동단체 설립 지원등의 활동을 떠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반핵평화는 반핵평화시민학교를 열어 국민들에

반핵평화운동연합

반전·군축통한 통일운동지향

조임숙씨는 또 “45년 미국의 원폭투하시 일본에 남아있던 동포중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46년이 지난 지금도 한·일 양국으로부터 냉대받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은 핵의 위협성을 국민에 진실

대한 홍보 교육사업등을 전개하고 장난감무기 불매운동 전쟁폭력영해추방운동등을 통해 생활속에서 부터 평화의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민간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정난과 전문성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

공해추방운동및 반핵평화와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민간 연구소.

82년 설립된 민간 환경운동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89년 3월 ‘한국 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로 확대개편됐다.

소장은 인명진 목사. 인소장은 “죽임과 억압, 소외와 분열을 거부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되살리기 위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고자 반핵평화와 공해추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개인및 사회, 교회단체와 연대 협력하여, 공해의 제반현

주및 어패류 오염조사, 90년 6월의 팔당호 골재채취 진상조사등 30여차례의 현장조사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현장조사 연구활동을 토대로 계간지 ‘공해연구’를 19호까지 발행하고 20여종의 자료집과 ‘내땅이 죽어간다’ ‘한국의 공해지도’등 3권의 단행본을 발간하는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 주고있다.

평화연구소의 특징은 전국의 교회조직을 이용, 신자를 대상으로한 환경강론·설교를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전국교회조직활용 대중성 확보

상과 핵문제의 실상을 조사,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푸른 금수강산을 이룩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4백5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평화연구소는 82년 5월 중랑천 오염 실태조사를 비롯, 85년 2월의 온산공단 지역

인소장은 “우리나라의 공해문제 역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확립과 더불어 우리민족이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면서 “따라서 성직자는 반공해·반핵평화운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금수강산을 되찾는 역

할에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평화연구소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핵무기와 핵발전에 대해서도 반평화적·반생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연구소의 이찬욱연구원은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중지